

#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1.01.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sup>1)</sup>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sup>2)</sup>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 목 차 〉

□ 중국 련윈강(连云港), 한·중·일 FTZ 설립을 공식 신청-----	2
□ 상하이 국제항운센터, 2011년 건설 계획 발표-----	3
□ 탄자니아, 아프리카 환적중심항만 건설 추진-----	4
□ DP World, 파키스탄 라호르에 내륙컨테이너터미널 개장-----	5
□ [공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6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mailto: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김성야 연구원(02-2105-2897, [sungyakim@kmi.re.kr](mailto:sungyakim@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중국 렌윈강(连云港), 한·중·일 FTZ 설립을 공식 신청

- 2월 13일, 중국 렌윈강 시정부는 한중일 FTZ 설립을 국무원에 정식 신청하였다고 발표함
  - 이 사업은 2002년에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삼국은 민간 차원에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음
  - 2010년 5월, 제3차한중일정부회의에서 “한중일FTZ”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음
  - 2011년에는 한국에 한중일협력기구를 설립하여, 2012년 이전에 관련 공동연구를 마무리 짓고, 삼국간 투자 협의를 논의할 계획임
  - 한편, 렌윈강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 및 일본 항만과의 거리가 짧고, 아세아-유럽 횡단철도의 동측 출발점 등 지리적 우세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렌윈강은 한중일FTZ, 보세항구 등 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자 유치 전략으로 한·일 중점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재, 총 투자액이 200억 달러에 달하는 중·일생태과학기술단지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으며, 100여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결정된 상태임
  - 홍콩현대컨테이너부두유한회사(MTL)와의 렌윈강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개발 협력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밝혀짐
- 렌윈강은 2010년도 기준으로, 항만 물동량 1.35억 톤, 컨테이너 물동량 387만 TEU를 처리하였음
  - “12.5계획”기간에는 총 물동량 3억 톤, 컨테이너 물동량 1,000만 TEU 처리할 계획이며, 주로 의약, 신자재, 신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6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예정임

&lt;렌윈강 위치도&gt;



&lt;렌윈강 항만 조감도&gt;



자료: <http://trans.wenweipo.com/> 2011. 2. 13. / <http://www.lygport.com.cn>, 2011. 2. 14.

김성야 연구원(☎ 02-2105-2897, [sungyakim@kmi.re.kr](mailto:sungyakim@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상하이 국제항운센터, 2011년 건설 계획 발표

- 2월 15일, 상하이시 도시건설교통위원회는 2011년 상하이국제항운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함
  - 올해 계획은 항운 서비스 기능 강화, 기초 인프라 지속 건설, 우대 정책 수립 등 3대 사업이 핵심이라고 밝힘
- 첫째, 국제항운발전종합시험구(国际航运发展综合试验区) 건설 사업
  - 이 사업에는 상하이항을 출발항만으로 할 경우의 세금 환급 정책 개선, 중국국적선박특별등록 제도 연구, 항만비용 할인 정책 강화 등 다양한 제도 수립계획이 포함됨
- 둘째, 항운 서비스 기능 제고 사업
  - 이 사업은 One-Stop 통관 서비스 개선, 상하이항운거래소를 활용한 항운 운임 파생시장 육성, 벌크화물 운임신고제도 연구, 상하이벌크화물운임지수 연구, 국가급선원평가센터 건설 등 물류관련 발전계획이 포함됨
- 셋째, 양산항 4단계 상반기 사업 및 와이까오차오(外高桥)항 6단계 후속 사업
  - 항저우(杭州)-상하이 구간 항로 준설, 상하이-난통(南通) 구간 철도 건설 사업 착공, 상하이 북부 내하 횡단도로 등 연구 사업이 포함됨
- 아울러, 지난 2월 11일, 중국선박공업그룹에서 추진 중인 창싱(长兴)조선기지 건설 2단계 사업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음
- 상하이 국제항운센터 건설은 지난, '11.5계획'기간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 양산항 1~3 단계사업, 와이까오차오 6단계 공사는 완공되어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상하이항은 현재 총 1,100개 이상의 선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lt;상하이국제항운센터 위치도&gt;



자료: <http://www.chinaports.org>, 2011. 2. 15. /

김성야 연구원(☎ 02-2105-2897, [sungyakim@kmi.re.kr](mailto:sungyakim@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탄자니아, 아프리카 환적중심항만 건설 추진

- 지난 1월 APM T사는 탄자니아 정부에 다에스살람(Dar es Salaam)항 개발사업을 제안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탄자니아 교통부는 APM T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 환적중심항만 건설 추진을 다짐
- 탄자니아의 수출입화물량이 그리 많지 않으나, 다에스살람(Dar es Salaam)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브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르완다, 우간다, 잠비아 등 인접국가의 컨테이너화물까지 취급함으로써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의 환적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함임
  - 다에스살람(Dar es Salaam)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아프리카 중서부지역 항만은 모잠비크의 마푸토(Maputo)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Durban)항 등이 있음
- 또한 탄자니아 교통부는 탄자니아 북부서안의 탄가(Tanga)지역 인근 Mwambani와 중부서안 바가노요(Bagamoyo)지역의 Mbegani에 항만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도 추진할 계획임
  - 다에스살람항의 개발은 APM T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항만복합단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한편 항만복합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탄자니아 교통부는 내륙국가와 항만복합단지간의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철도네트워크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사업비는 총 5백만 달러이며, 개발사는 Chinese Civil Engineering & Construction사임

※ KMI 국제물류위클리 83호, 86호 참조



자료 : ci-online, 2011. 02. 14.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mailto:chkim@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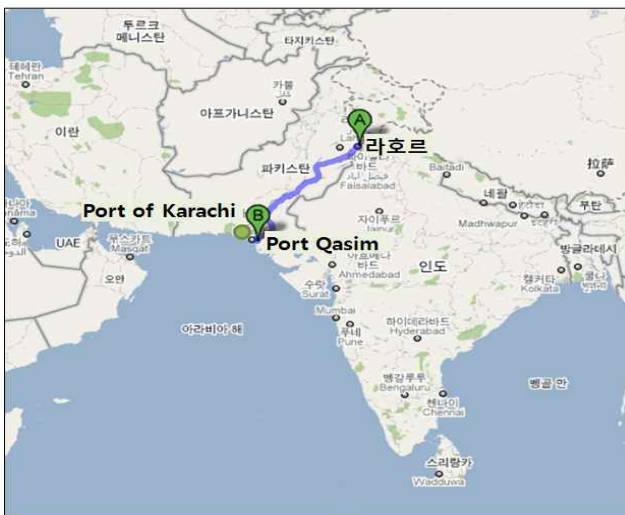
## □ DP World, 파키스탄 라호르에 내륙컨테이너터미널 개장

- DP World가 파키스탄의 제2도시인 라호르에 최신설비를 보유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Inland Container Terminal, ICT)을 개장하였음
- Prem Nagar Dry Port라고도 불리는 이번 ICT 프로젝트는 파키스탄의 철도부(Ministry of Railway)와의 첫 번째 민관합작프로젝트(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형태로 진행되었음
- ICT는 지난 1월에 DP World가 개장한 QICT(Port Qasim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과 철도로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약 1,278km 떨어져 있음
- ICT의 부지 규모는 40만 m<sup>2</sup>, CFS 규모는 25,000 ft<sup>2</sup>(약 2,300m<sup>2</sup>)이며, DP World와 파키스탄 최대의 항만터미널 운영기업인 Permeir Mercantile Services(PMS)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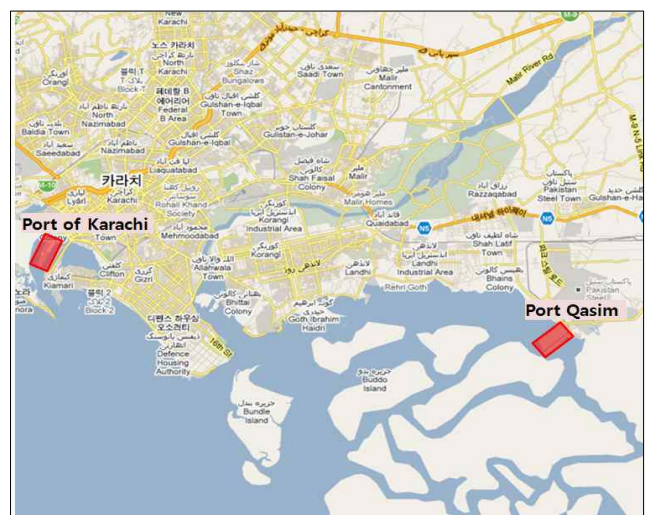
## ※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 84호 참조

- 현재 파키스탄의 제1항만은 Port of Karachi이며, 2009년 처리물동량은 130만 TEU로서, Port Qasim의 75만 TEU에 비해 약 1.7배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음

&lt;라호르시와 Port Qasim 위치 및 연결망&gt;



&lt;Port of Karachi와 Port Qasim 위치&gt;



자료 : DP World 보도자료, 2011.2.10. / CI online, 2011.2.11.

<http://www.aircargonews.net>, 2011.2.2.

송주미 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공 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 조사 목적

- 국토해양부는 해운·물류 관련 유망사업 발굴 및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 조사 기간

- 2011. 2. 7 ~ 2. 21

### □ 신청 대상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 □ 신청 대상 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태영, 02-2110-8558)

※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KMI 국제물류위클리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